

여대생의 음주 동기가 음주에 관한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손은교¹, 정화영^{2*}

¹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²강릉 영동대학교 치위생과

The Effects of Drinking Motivation on female college student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Drinking.

Eun-Gyo Son¹, Hwa-Young Jung^{2*}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행되었으며, 여대생의 음주 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본인의 학업과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출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연구 대상은 20대 여대생 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자료는 SPSS 24.0과 AMOS 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대생의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학업과 인간관계였다. 또한,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인식은 음주 문제의 요소가 더 크고, 음주 문제를 통하여 불안을 인식한 여대생은 음주의 행동을 변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음주의 동기 중 개인의 내적, 외적 동기에서 음주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음주 행동을 유지하고, 음주의 문제를 느끼면 음주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하여, 여대생이 선호하는 음주를 파악하고, 음주 동기에 따른 음주문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음주에 대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lcohol drinking motivation on the drinking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rinking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not only for their academic performance and health status but also for future reproduction concer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296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Research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2 statistical programs. Results of this study found academic and human relationships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stress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drinking was more influential on the drinking problem,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perceived anxiety through the drinking problem tried to change the behavior of drinking. Also, the perception of drinking by the influence of alcohol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drinking by college students who perceived anxiety through drinking problem. Second, if drinking is beneficial in the internal or external motivation of the individual, it maintains drinking behaviors and changes the behavior of drinking when experiencing the problem of drinking. Through these results, we aim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negative risk of alcohol by understanding the drinking prefer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examining the drinking culture according to drinking motives.

Keywords : Alcohol awareness, College girl, Drinking behavior, Drinking motive, Drinking problem

1. 서론

이러한 문제 음주는 음주 관련 질병과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 그 결과 음주를 계속 관리 및 개선을 필요한 섭취 행동으로 만들었다.

1.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의 의존이나 남용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의 행

*Corresponding Author : Hwa-Young Jung(Hankook Univ.)

Tel: +82-10-4370-0219 email: psjhy@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3, 2018

Revised (1st October 19, 2018, 2nd October 24, 2018, 3rd November 5,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태 현황파악을 위해서 최근에도 각종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문제 음주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간 음주자의 연도별 증가에서 2015년 20.8%, 2016년 25.7%, 2017년 27.4%로 폭음을 하는 고위험 음주의 계속적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1]. 또한, 한국 건강진흥 개발원에서 발표한 ‘2017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폭음을’에서 남성은 2015년 54.2%에서 2016년 53.5%로 0.7% 하락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2015년 23.3%에서 2016년 25.0%로 1.7%의 상승하는 것을 파악하였다[2].

두 번째, 대학생의 음주 문제의 현황을 알고자 질병관리 본부는 2018년에 음주 관련 조사를 하였다. 이는 전국의 82개 대학, 전문대학생 50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행태 심층 조사’가 목적이었다. 그 결과 전체 음주는 2009년 2.6%에서 2017년 38.4%로 높은 증가를 했다. 남학생의 경우 2009년 35.4%에서 2017년 44.1%로 8.7%의 상승을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2009년 15.5%에서 2017년 32.8%로 17.3%의 증가를 했다. 고위험 음주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23.3%, 성인 남성 21.2%로 2.1%의 차이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17.2%, 성인 여성 5.4%로 11.8%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음주가 문제가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음주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세 번째, 교육부는 2018년 대학생의 음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술의 소비가 많고, 각종 사고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학교 축제의 음주를 제지하기 위해서 학교 축제에서 주점의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5월 대학가의 축제에서 많은 찬반 의견이 나왔으며, 주류 판매 면허가 없으면 조세법 처벌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위험을 알렸고, 이로 인해 축제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고 외부상점에서 술을 사 와서 먹는 편법을 진행하게 했다[3].

이처럼 음주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음주의 문제는 뉴스에서 년 초에 자주 볼 수

있는데, 학기 초 새내기 MT에서만 2006년부터 10년간 22명의 음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4]. 이는 음주로 인해 축제의 본 취지가 사라지게 했고, 만취 음주 사고를 만들었다[5]. 잘못된 음주 문화와 음주 폐해를 통해 사회는 대학생의 음주 행동을 지적하게 했다. 이에 대학가는 술을 팔지 않는 축제를 시행하면서 음주에 대한 사건사고와 문제를 예방하려하고 있으나[6], 아직도 대학생의 음주는 허용되는 음주 문화의 사회 축소판으로써 대학생의 잘못된 음주 문화는 더욱 강요되고 있다[7]. 이에 음주에 취약한 여대생에 관한 음주의 문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 동기 파악이 중요하다[7],[8].

음주 동기는 문제 음주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8], 선행연구에서는 사고 동기, 동조 동기,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등 음주 동기를 4가지로 나누어서, 동기의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통한 문제 음주 파악을 하였다[7],[8],[9].

이는 음주 동기의 파악이 음주 문제의 파악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음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심리적 변인에 따라 음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심리적 변인 파악이 음주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9].

또한, 65%가 20 ~ 30대 여성으로 나타난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가 신체 건강 위험을 동반한다고 하였다[10].

이처럼 음주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위험을 더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상태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과[9], 부정적 정서의 파악 하는 것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12].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자의 음주에 대한 변화 차이의 심각성과, 음주에 미치는 동기 요인, 음주 행동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루는[9] 선행연구의 연장선으로 스트레스를 음주의 원인으로 두고, 여대생의 음주 동기가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여대생의 음주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우선, 여대생의 음주를 살펴보기 전 여대생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후 그에 따른 음주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처럼 여대생의 음주 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본인의 학업과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출산을 위해서라도 더욱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의 심리적 원인에 따른 음주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행태 변화를 다루는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여대생의 음주 행태 변화에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대생의 음주 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동기파악은 음주의 긍정적인 요인을 통하여 음주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부정적인 요인은 여대생의 스트레스 요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내적, 외적 긍정 동기는 음주 유익에 영향을 준다.
2. 내적, 외적 긍정 동기는 음주 문제에 영향을 준다.
3. 음주 유익은 음주 행동 유지에 영향을 준다.
4. 음주 유익은 음주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준다.
5. 음주 문제는 음주 행동 유지에 영향을 준다.
6. 음주 문제는 음주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강원도 소재 여대생이며, 설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은 자기기재 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총 300부를 제공하여 미흡한 설문을 제외하고 296명의 설문을 최종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은 [13], [14] 의 설문내용과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개정 사용하였다.

2.3 통계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과 Amos 2.1 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 실시한다.
- 2) 음주에 관한 동기 및 행동 신념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시행한다.
- 3)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음주 행동 차이를 살펴본다.
- 4)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유익, 장벽에 관한 차이를 살펴본다.
- 5) 음주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본다.
- 6) 음주 선호에 따른 음주 경험을 Chi-square 검정을 시행한다.

2.5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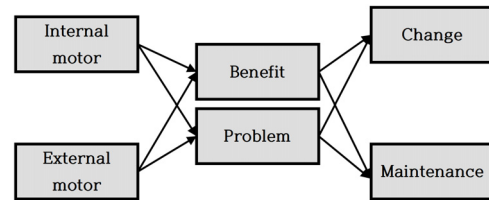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일반사항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세 이하가 32.4%로 가장 많았고, 20, 21, 22세의 분포는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23세 이상은 11.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주거 형태는 가족과의 주거가 44.3%, 기숙사 생활이 34.8%로 공동생활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음주 비용은 1~3만원, 3~5만원이 22.0%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대학교가 44.6%이었다. 이는 55.4%가 대학 생활 전에 음주경험을 한 것으로 음주에 노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주 대상은 동성 친구의 비중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흡연 여부는 84.5%가 비흡연자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296

Variable	n	%
Age	20 years old	96 32.4
	21 years old	78 26.4
	22 years old	89 30.1
	23 and over	33 11.1
	Total	296 100.0
Housing type	Living with family	131 44.3
	Living with friends	11 3.7
	Living alone	51 17.2
	Dormitory life	103 34.8
	Total	296 100.0
The start of drinking	Elementary School	3 1.0
	middle School	45 15.2
	high school	116 39.2
	University	132 44.6
	Total	296 100.0
Drinking expenses	Less than ten thousand won	58 19.6
	less than 1 to 30,000 won	65 22.0
	less than 3 to 50,000 won	65 22.0
	less than 5 to 100,000 won	60 20.3
	Over 100,000 won	48 16.2
Drinking party	Same-sex friend	256 86.5
	Rational friend	16 5.4
	family	17 5.7
	Etc	7 2.4
	Total	296 100.0
Smoking status	Yes	46 15.5
	No	250 84.5
	Total	296 100.0

3.2 음주 관련 요인분석

음주에 관련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은 내적동기, 외적동기, 유지, 변화, 유익, 문제점으로 요인 명을 정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신뢰도는 .729부터 .892까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요인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A는 내적 동기로 음주에 대한 자신감, 용기, 스트레스 해소를 살펴보고, B는 외적 동기로 음주를 통하여 사회생활, 인간관계, 소외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C는 음주를 유지하는 이유인 음주량이 괜찮고, 음주 횟수가 괜찮음을 살펴보았고, D는 변화로 음주량을 줄이고, 음주 횟수를 줄이고, 절주를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는 유익으로 음주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사람들과 어울림을 할 수 있고, F

는 장벽으로 음주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크고, 건강에 해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1	2	3	4	5	6	Cronbach's α
A	a1	.929					.849
	a2	.916					
	a3	.659					
B	b1		.855				.857
	b2		.833				
	b3		.823				
C	c2			.930			.747
	c3			.840			
D	d1				.893		.892
	d2				.849		
	d3				.726		
E	e1					.917	.895
	e2					.902	
	e3					.899	
F	f1					.864	.729
	f2					.831	
	f3					.720	
KMO ² / Bartlett = .796 p= .000 ***							

* p<.05, ** p<.01, *** p<.001

a: External motivation b: Intrinsic motivation

c: maintain d: change e: Benefit f: barrier

3.3 여대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대생은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tress of female college student

	a		b		p
	Mean	SM	B	β	
stress	3.58	0.864	0.886		.000***
study	3.82	0.786	0.322	0.293	.000***
employment	3.39	0.939	0.09	0.098	.091
appearance	3.31	0.866	0.111	0.111	.060
Relationships	3.14	0.97	0.254	0.286	.000***
economy	3.28	1.04	-0.002	-0.002	.965
R ² = 0.347 , F= 30.757 , Durbin-Watson=1.916, p=.000***					

* p<.05, ** p<.01, *** p<.001

a: no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b: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3.4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음주 행동 차이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음주 행동 차이에서는 음주의 행동을 유지하려는 것에는 유의하지 않고, 음주에 관하여 변화를 하려는 행동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 자체의 행동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음주 행동을 변화시켜, 음주량과 음주 횟수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절주할 의향까지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 진행에 있어 음주가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The Differences in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impact of drinking on academic performance.

		N	Mean	SD	F / p
a1	① Not very	16	3.44	1.094	1.812 / .127
	② no	58	3.24	0.885	
	③ usually	87	3.16	0.834	
	④ agree	101	2.92	1.055	
	⑤ Very agree	34	3	1.128	
	Total	296	3.09	0.979	
a2	① Not very	16	3.88	1.147	0.704 / .590
	② no	58	3.57	0.92	
	③ usually	87	3.55	0.759	
	④ agree	101	3.52	0.844	
	⑤ Very agree	34	3.68	0.912	
	Total	296	3.58	0.86	
a3	① Not very	16	3.81	1.109	0.052 / .995
	② no	58	3.79	0.894	
	③ usually	87	3.78	0.722	
	④ agree	101	3.83	0.762	
	⑤ Very agree	34	3.82	0.904	
	Total	296	3.81	0.811	
b1	① Not very	16	3.38	0.957	3.467 / ①=②=③=④ < ②=③=④=⑤ .009**
	② no	58	2.79	1.104	
	③ usually	87	3.13	0.974	
	④ agree	101	3.26	1.007	
	⑤ Very agree	34	3.53	0.992	
	Total	296	3.17	1.03	
b2	① Not very	16	3.38	0.806	5.389 / ①=②=③ < ②=③=④=⑤ .000***
	② no	58	2.6	0.99	
	③ usually	87	2.92	0.879	
	④ agree	101	3.16	0.914	
	⑤ Very agree	34	3.32	0.912	
	Total	296	3.01	0.941	
b3	① Not very	16	2.94	0.929	5.803 / ①=②=③=④ < ②=③=④=⑤ .000***
	② no	58	2.6	1.042	
	③ usually	87	2.89	0.841	
	④ agree	101	3.17	0.906	
	⑤ Very agree	34	3.44	0.96	
	Total	296	2.99	0.953	

* p<.05, ** p<.01, *** p<.001

** a: maintenance, b: change

3.5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음주 인식차이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음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음주가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음주를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음주는 사고위험이 크고, 건강에 해로우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5. The Differences in drinking awareness about the effects of drinking on schoolwork.

		N	Mean	SD	F / p
a1	① Not very	16	2.94	0.998	0.582 / .676
	② no	58	3.26	0.928	
	③ usually	87	3.23	0.924	
	④ agree	101	3.12	1.052	
	⑤ Very agree	34	3.29	1.115	
	Total	296	3.19	0.994	
a2	① Not very	16	3.19	1.109	0.209 / .933
	② no	58	3.38	0.895	
	③ usually	87	3.4	0.882	
	④ agree	101	3.36	0.934	
	⑤ Very agree	34	3.32	0.878	
	Total	296	3.36	0.91	
a3	① Not very	16	3.31	1.302	0.409 / .802
	② no	58	3.53	0.903	
	③ usually	87	3.51	0.926	
	④ agree	101	3.39	1.01	
	⑤ Very agree	34	3.38	0.922	
	Total	296	3.45	0.969	
b1	① Not very	16	3.44	0.964	4.541 / ①=②=③=④ < ②=③=④=⑤ .001**
	② no	58	3.28	1.039	
	③ usually	87	3.45	0.774	
	④ agree	101	3.56	0.805	
	⑤ Very agree	34	4.03	0.717	
	Total	296	3.52	0.867	
b2	① Not very	16	3.5	0.894	5.516 / ①=②=③=④ < ②=③=④=⑤ .000***
	② no	58	3.16	1.073	
	③ usually	87	3.55	0.803	
	④ agree	101	3.68	0.871	
	⑤ Very agree	34	4	0.853	
	Total	296	3.57	0.922	
b3	① Not very	16	3.75	0.683	9.576 / ①=②=③ < ②=③=④ < ④=⑤ .000***
	② no	58	3.45	0.902	
	③ usually	87	3.69	0.67	
	④ agree	101	3.99	0.728	
	⑤ Very agree	34	4.32	0.684	
	Total	296	3.82	0.784	

* p<.05, ** p<.01, *** p<.001

** a: Benefit, b: unrest

3.6 음주 동기가 음주에 관한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

음주 동기가 음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내적, 외

적 동기는 유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에 대한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에 대하여 유익하다고 인식하면 음주 행동을 유지하고자 하고, 음주 행동에 문제를 인지하면, 음주 행동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ation and cognition and behavior on alcohol.

			Estimate	S.E.	C.R.	P	
a	<--	f	.518	.057	9.017	***	채택
b	<--	f	-.026	.049	-.521	.603	기각
a	<--	e	.301	.042	7.095	***	채택
b	<--	e	-.017	.039	-.446	.656	기각
d	<--	g	-.079	.070	-1.139	.255	기각
c	<--	g	.703	.071	9.879	***	채택
d	<--	h	.215	.101	2.125	.034	채택
c	<--	h	-.014	.090	-.154	.877	기각

* p<.05, **p<.01, ***p<.001

** a: Benefit, b: unrest c: maintenance, d: change
e: Intrinsic motivation, f: External motivation
g: Benefit, h: problem

3.7 여대생의 음주 선호도에 따른 음주종류 차이

여대생의 음주 선호도의 차이에서는 소주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맥주가 27.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섞음 주로 20.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5.1%, 막걸리 4.4%, 와인 1.0%로 음주를 선호하는 여학생은 소주, 맥주, 소주와 맥주를 섞음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Difference of drinking type according to drinking prefer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	Prefer drinking		Total	χ^2
	Yes	No		
n	28	54	82	
a	1	34.1	65.9	100.0
	2	19.2	36.0	27.7
Total	9.5	18.2	27.7	
n	77	38	115	
b	1	67.0	33.0	100.0
	2	52.7	25.3	38.9
Total	26.0	12.8	38.9	

38.344
.000***

	n	4	2	6
c	1	66.7	33.3	100.0
	2	2.7	1.3	2.0
Total	1.4	0.7	2.0	
n	32	30	62	
d	1	51.6	48.4	100.0
	2	21.9	20.0	20.9
Total	10.8	10.1	20.9	
n	0	3	3	
e	1	0.0	100.0	100.0
	2	0.0	2.0	1.0
Total	0.0	1.0	1.0	
n	4	9	13	
f	1	30.8	69.2	100.0
	2	2.7	6.0	4.4
Total	1.4	3.0	4.4	
n	1	14	15	
g	1	6.7	93.3	100.0
	2	0.7	9.3	5.1
Total	0.3	4.7	5.1	
T o t a l	n	146	150	296
	1	49.3	50.7	100.0
	2	100.0	100.0	100.0
Total	49.3	50.7	100.0	

* p<.05, ** p<.01, *** p<.001

** a: beer, b: Soju, c: yangju

d: Mixing drink, e: wine

f: Makgeolli, g: Etc

*** 1 : preferred drinking

2 : preference for drinking

3.8 연령에 따른 건강 인식을 포함한 음주선택

연령에 따라 건강을 인식하는 여대생의 음주 선택에는 맥주와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Choice of drinking including health awareness by age.

	N	Mean	SD	F / p
20 years old	96	2.46	0.845	3.094 /
21 years old	78	2.24	0.871	①=②=③
22 years old	89	2.34	0.929	<
23 and over	33	3.39	5.184	④=⑤
Total	296	2.47	1.927	.027*
20 years old	96	2.43	0.843	1.904 /
21 years old	78	2.12	0.897	.129
22 years old	89	2.25	0.895	
23 and over	33	2.27	0.761	
Total	296	2.27	0.869	

c	20 years old	96	2.38	0.798	2.215 / .087
	21 years old	78	2.12	0.789	
	22 years old	89	2.24	0.989	
	23 and over	33	2.52	0.87	
	Total	296	2.28	0.871	
d	20 years old	96	2.71	0.845	1.875 / .134
	21 years old	78	2.65	0.865	
	22 years old	89	2.51	1.013	
	23 and over	33	2.94	1.116	
	Total	296	2.66	0.94	
e	20 years old	96	2.76	0.867	3.142 / .026*
	21 years old	78	3.04	0.986	
	22 years old	89	2.6	0.997	
	23 and over	33	2.67	1.051	
	Total	296	2.77	0.97	

* p<.05, **p<.01, ***p<.001

** a: beer, b: Soju, c: yangju
d: wine, e: Makgeolli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 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음주에 대한 인식을 통한 인과관계와 음주의 선호도를 통한 음주선택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여대생의 음주 행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실시되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바라본 내용은 Cox와 Klinger (1988)가 음주 동기를 고양 동기, 대체 동기, 동조 동기, 사고 동기로 나뉘었고, 먼저 내적 동기 중 고양 동기는 긍정을 보고, 대체 동기는 부정울 보았다. 또한 외적 동기로는 긍정을 보는 사고 동기와 부정울 보는 동조 동기로 나누어서 음주 동기를 근원과 강화 동기에 따라 4가지 동기를 분류하였다[15].

이에 본 연구는 동기의 구성을 내적 동기, 외적 동기의 긍정의 효과만을 살펴보았고, 부정적인 면은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가장 원인이 되는 학업 스트레스를 통하여 음주에 대한 심적 평가를 유익과 문제로 나누었으며, 음주행태를 유지와 변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술을 마시고자 하는 동기가 음주 행동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였고, 여학생은 음주동기가 음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 하였다[16]. 본 연구에서도 음주의 내적, 외적 긍정 동기는 음주를 유익하게 생각하고, 음주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음주의 동기가 긍정적 면으로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음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 음주 행동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 도출하였다.

이는 음주를 통하여 소외되지 않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며, 사회생활을 좋게 만든다는 외적 동기와 음주가 스트레스를 없애며, 용기를 만들고, 자신감을 만든다는 내적 동기의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음주에 대한 비용이나 사고위험,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음주에 대해 변화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여대생은 음주에 대한 문제점의 불안 요소를 통해 음주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음주 동기가 음주 문제에 가장 영향을 준다는 [16],[17]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을 통한 음주 행동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기존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음주의 동기보다는 음주에 대한 인식차이가 음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통한 음주 인식과 행동을 살펴보면, 여대생이라는 조건에 학업의 스트레스는 유발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17]의 연구 결과처럼 학업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여대생이 음주에 관하여 불안을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음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17]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음주의 선호도 및 건강에 대한 인식 후 선택 하는 음주의 종류를 확인해 보았다.

여대생의 음주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소주, 맥주, 섞음주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었고, 나이에 따라 건강에 대해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의 음주선택은 맥주와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학업과 인간관계이다.
- 2)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인식은 불안의 요소가 더 크고, 불안을 인식한 여대생은 음주의 행동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음주의 동기 중 긍정의 요소만을 담고 있는 개인의 내적, 외적 동기는 음주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음주 행동을 유지하고, 음주에 불안을 느끼면 음주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여대생의 음주 선호에 따른 음주 종류는 소주, 맥주, 섞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나이에 따라 건강에 대해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의

음주선택은 맥주와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대생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음주는 학업에 영향을 주며, 음주를 계속 진행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것은 음주에 대한 유익과 문제점 등 음주에 관한 인식 차이라는 것이다.

음주는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심심할 때 사람의 기분의 높고 낮음을 만든다.

이처럼 음주는 모순적이고 일관되지 않게 우리에게 생활에 녹아있다. 음주를 하는 나이도 다양하고, 음주를 하는 상황도, 음주의 종류, 공간, 대상도 다양하며, 음주의 결과 또한 개인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음주에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음주를 통하여 소통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또는 노동 후의 피로 해소의 용도로 음주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음주에 대한 인식 중 음주 문제의 불안요소를 강조하고 절주에 관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학업에 음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주에 관한 결과에 학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생이니 당연히 학업은 본분이고 그를 잘 수행해야 졸업 및 취업에 이른다. 학업은 단지 성적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에 학생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 고통을 술로 이겨 보려 하는 것이다.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음주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를 빠르게 바꿀 수 없더라도 여대생의 음주에 관한 인식상태의 변화를 통하여 음주의 행태를 절주의 행태로 바꿀 수 있도록 음주에 관한 문제점을 부각하는 교육 시행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강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부터 절주의 교육에 앞장서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타 연구와 다르게 음주의 동기를 긍정만을 파악하여 기존 연구와의 비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설문 대상자가 강원도 일부 지역 여대생으로 한정되어 설문 결과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차이와 음주 동기의 부정적 면을 포함하여 음주에 대한 동기 및 행동 변화를 파악해보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Announces Results of Community Health Survey 2017 <http://www.cdc.go.kr> March, 2018.
- [2] Korea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7 Alcohol Statistics Book <http://www.khealth.or.kr/search?menuId=MENU00953> March, 2018
- [3] Gyeongbuk Daily, The university has no drink, it is worth a try,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488>, May, 2018.
- [4] Insint, "A newborn of death MT" Twenty-two college students died in a 10-year drinking accident. <http://www.insight.co.kr/news/148904>, April, 2018.
- [5] KBS NEWS, College festivals stained by ridiculous... Accidents and Accidents. <http://mn.kbs.co.kr/news/view.do?ncd=2941933>, October, 2014.
- [6] Korea Times, University festival symbol 'student tavern' out.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32007650731>, May, 2018.
- [7] J.Y. Hong, J.A. Park, "Study on the Effect of Drinking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on Problem Drink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5, pp. 447-463, 2016.
- [8] S.H. Bae, N.M. Yang, "Five Factor Personality, Alcohol Expectancy,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 and Problematic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Comparison of Cluster by Drinking Motiv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2, pp. 213-232, 2015. <http://dx.doi.org/10.15703/kjc.16.2.201504.213>
- [9] J. R. Joeng, E. Y. Kim, Y. J. Lee, S. A. Choi, J. K. Kim, "The Effects of Psychosocial factors on college students' drinking motives: focused on depressio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 2, pp. 293-308,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293>
- [10] M.H. Park, H.O. Jeon, "The Influence of Health Behavior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n Depression among Korean Female Problem Drinker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11, pp. 7844-7854, 2015.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14845>
- [11] I.K. Jong, "Comparison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State of Drinking, Drinking Motives, and Problem Drinking",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8, pp. 183-192, 2018.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26479>
- [12] I.K. Jong, "The Effects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 497-506, 2017.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198009>
- [13] K.H. Suh, S.A. Yang, "The Role of Alcohol Use as Coping Method with Stress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1, pp. 331-352, 2011.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61816>
- [14] H.R. Park, J.J. Lee, "When Woman Drink: What to Drink in What Context i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6, No.3, pp. 243-263, 2011.
DOI: <https://doi.org/10.18205/kpa.2011.16.3.001>
- [15] W. M., Cox & E. Klinger,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97, pp. 168-180,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97.2.168>
- [16] J.G. Jung, J.S. Kim, J.I. Kim, K.H. Kim, "How Do the Drinking Motives and Expectancies Relate to Drink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Fam Med*. Vol.31, pp. 377-383, 2010.
DOI: <https://doi.org/10.4082/kjfm.2010.31.5.377>
- [17] J.W. Shin, N.M. Yang, "The Impact of Impulsivity on Problem Drinking in College Student: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Motives and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1831-1848, 2014.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082084>

손 은 교(Eun-Kyo Son)

[정회원]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환경 대학원 보건 관리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 보건행정학(박사과정)

<관심분야>

치위생, 감염관리, 보건

정 화 영(Hwa-Young Jung)

[정회원]



- 2004년 8월 : 중앙대학교보건학 (석사)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보건학 (박사)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